

文·安 단일화 위한 TV 토론 한다

결론은 여론조사?

첫 물협상... 매일 정례회의 열기로 국민 공감·참여·지지 3원칙 재확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13일 아젠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첫 물협상을 갖고 두 후보 간 TV토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단일화 물이 최종 합의될 때까지 매일 오전 10시 비공개 정례회의를 갖기로 했다.

문 후보 측 협상단인 박영선·윤호중·김기식 의원과 안 후보 측 조광희·비서실장·김태성·상황실장·이태규·미래기획실장 등 6명은 이날 비공개 회의의 직후 연 브리핑에서 지난 6일 공동합의문에서 밝힌 대선승리와 정권교체의 문에 대한 단일화,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라는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이 감동하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기 위해 상호존중의 정신을 일관되게 견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TV 토론회를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매일 오전 10시 회의 개최기로 결정했다.

또 매일 회의 결과는 합의에 따라 공식발표하고 공식발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익명의 관계자의 발언은 공식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는 후보별 3명씩 양측 실무단이 참석할 가운데 시내 모처에서 3시간반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실무단은 이에 앞서 오전 통의동 갤러리 류가현에서 상견례를 했다. 양

측은 두 후보의 지지세가 팽팽한 상황에서 결국 단일화 방식에 최종 본선 진출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협상팀장인 박 의원과 조 실장은 상견례가 시작되기 전 물협상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박 의원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망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왔다"며 "국민의 가슴 속에 있는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오늘 만남을 통해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단일화, 국민이 참여하는 단일화, 국민이 지지하는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3원칙을 제시한 뒤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두 후보가 아름다운 경쟁을 해 좋은 결과를 얻기를 국민이 원한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름다운 연대, 멋진 단일화를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의를 사람의 일이라 사소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무엇이 국민이 위한 것인지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차이"라며 "(양측의) 협력과 협동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차이를) 크게 부풀리지도 모르겠지만, 이에 현혹되지 않고 국민 바람만



“단일화 과정도 아름답게” 13일 오전 서울 중로구 통의동 류가현 갤러리에서 열린 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 물협상에서 안 후보 측 조광희 비서실장과 문 후보 측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안 후보 측 이태규 미래기획실장, 김태성 상황실장, 조광희 비서실장, 문 후보 측 박영선, 윤호중, 김기식 의원. /연합뉴스

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이 "하루에 한 번씩 브리핑을 하기로 공감을 했다"고 하자, 조 실장 "그런 조금 더 얘기를 해야 하는데..."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두 후보간 '새정치 공동선언'은 이날 밤 실무협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중앙당 폐지, 국민연대 방향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최종 조율한 뒤 이르면 14일 두 후보가 직접 발표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측의 경제복지정책팀과 통일외교안보정책팀도 14일 오전

첫 회의를 각각 열어 세부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국회 당대표실에서 중진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뒤 "통 크게, 국민을 바라보고 가겠다"며 "시간도 많지 않으니 빨리, 뚜벅뚜벅 대담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서 "단일화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이 이기는, 상식이 이기는, 미래를 이기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문항에 새누리당을 넣을 것이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넣을 것이냐에 따라 양측의 유·불리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는 다자구도 단순지지도를 물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을 제외한 뒤 "이 후보와 경쟁할 단일후보로서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물었다.

설문 문구 문 '적합도'·안 '경쟁력' 선호 역선택 방지·후대전화 반영비율도 쟁점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13일 단일화 경선물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여론조사단 단일화의 한 방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구체적인 조사 방법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설문 문구.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는 적합도, 안 후보는 경쟁력 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흐름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아젠다 후보단일화 조사에서 단순 지지도 조사방식에 벗어나 지난 5일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경쟁할 아젠다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다고 보느냐'고 문항을 바꾼 이후 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조사대상의 범위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통상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여론조사 첫 질문은 경쟁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여부를 묻고 해당 응답자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때 문항에 새누리당을 넣을 것이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넣을 것이냐에 따라 양측의 유·불리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지정당과 지지후보가 불일치할 경우가 있어 정당보다는 인물을 물어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법을 도입한 셈이다.

여론조사 때 집전화 외에 휴대전화 비율을 얼마나 반영할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2002년 단일화 때는 100% 집전화로 조사했지만 그동안 휴대전화 사용자가 크게 늘면서 휴대전화도 일정부분 반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안 후보가 20~30대 젊은층의 지지율이 높지만 이들이 집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휴대전화 반영비율을 높이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론조사 시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전화 통화 성공률이 높은 휴일을 포함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이태수 리얼미터 대표는 "리얼미터가 최근 4주간 실시한 일간 조사에 따르면 토·일 조사는 문 후보가, 일·월 조사는 안 후보가 유리했다"며 "4주 간 조사에서 3주 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2002년에는 오차범위에 있더라도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한다고 미리 합의했다.

이때 문항에 새누리당을 넣을 것이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넣을 것이냐에 따라 양측의 유·불리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는 다자구도 단순지지도를 물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을 제외한 뒤 "이 후보와 경쟁할 단일후보로서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물었다.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11. 12(월)~30(금)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안철수 펀드’ 7시간 만에 48억원 돌파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내놓은 안철수 펀드가 출시 7시간 만에 48억원 이상을 모았다.

안 후보 캠프는 출시 7시간만인 13일 오후 5시 현재 48억4800만원을 모았다고 밝혔다. 참여인원은 4632명. 1인당 평균 금액은 약 105만원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달 22일 1차 담쟁이펀드를 출시해 56시간 만에 목표액 200억원을 모았다. 시간당 평균 모금액을 따져보면 문 후보는 3억6000여만원, 안 후보는 6억9000여만원이다.

모집 속도에서 안 후보가 앞서고 있다. 목표액은 280억 원이다. 이는 18대 대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560억 원의 절반이다.

금리는 문 후보 펀드와 같은 연 3.09%다. 모금기간은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2월 19일 대선 이후 70일 이내에 선거비용이 보전되므로 펀드 투자금 상환일은 내년 2월 27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젠다 후보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안 후보가 상환을 보증한다. 펀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안철수 펀드 홈페이지(ahnfund.kr)나 진심캠프 홈페이지(jinsimcamp.kr)로 들어가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은행 계좌로 돈을 부치면 된다. 최소 1만원부터 가능하며 상환액 제한은 없다.

이중형기자 galee@kwangju.co.kr

중 국

11/21 출발확정 // ALL 포함

- ★ 무안-상해/소주/항주 5일 ₩499,000~
- ★ 무안-상해/장가계+천문산 4일 ₩849,000~
- ★ 무안-상해/장가계/소주 5일 ₩1,049,000~
- ★ 무안-북경 4일 ₩499,000~
- ★ 무안-북경 5일 ₩569,000~

불포함: 개인경비, 중국단체비자, 유류할증료

유럽여행

- ★ [홍소핑방명]친퀘테레/시에나/베네치아 이탈리아 완전 일주 서유럽 4개국 8일 ₩1,290,000~
- ★ [홍소핑방명]친퀘테레/시에나/베네치아/나폴리 이탈리아 완전 일주 서유럽 4개국 9일 ₩1,390,000~
- ★ 동화속 나라 캄파니아+엘크+프라하야경 동유럽6국 9일 ₩1,190,000~
- ★ [특급호텔3박+케코바+사프란블루]터키일주 9일 ₩1,090,000~

국내 여행

제주도 여행 3일!!!

- ★ 광주-제주도 ₩259,000~ 불포함:기사와가이드(₩10,000),석식,수송비 (광주-목포&장흥)

11월 1일 광주 → 목포항 셔틀버스 운행 개시

- ★ 광주-제주도 2박3일(씨스타크루즈호 왕복/일반호텔 5인실기준) ₩1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 ★ 씨스타크루즈호 목포-제주 편도 <광주출발 목포항 도착 셔틀버스포함> ₩30,000

국내 섬여행

- ★ 울릉도 2박3일 ₩310,000~ 1박2일 ₩279,000~
- ★ 홍도, 흑산도 1박2일 ₩189,000~

무안에서 떠나는 태국여행 (12/27~2/25 총16회)

무안에서 떠나는 태국여행 (12/27~2/25 총16회)

관 광: 방콕/파타야 3박5일 ₩84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150,000), 가이드&기사 팀(\$40)

골프54H: 방콕/파타야 3박5일 ₩1,29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150,000), 가이드&기사 팀(\$40), 전통카, 도착일 석식, 클럽 중식, 캐디팀(300바트/18홀 1인기준)

무제한 라운딩: 방콕/파타야 3박5일 ₩89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150,000), 전통카, 캐디팀300바트(18홀/1인), 캐디팀200바트(18홀/1인), 미팅&샌딩비, 세탁비(50바트/1일)

겨울방학때 떠나는 무안-마카오 전세기

12/29-2/2 (매주 수, 토 출발!! 총 10회!!)

관 광: 마카오/홍콩 2박4일 ₩999,000~

관 광: 마카오/홍콩/심천 2박4일 ₩1,049,000~

관 광: 마카오/홍콩(해양공원) 3박5일 ₩1,049,000~

관 광: 마카오/홍콩/심천 3박5일 ₩1,099,000~

관 광: 마카오/주해 골프 36H+관광 2박4일 ₩1,399,000~

관 광: 마카오/주해 골프 54H+관광 3박5일 ₩1,649,000~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2000.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호남을대표하는 여행브랜드
조이투어
JOY TOUR CO.,LTD

대표전화: (062)234-3222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5가151-1번지 FAX (062)234-3141

일본 가족과 함께 카멜리아로 떠나는 큐슈 온천 즐기기!!

- 실속 가족과 함께 떠나는 일본 고급펜션 4일 ₩29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국내(광주-부산)수송, 선내 식사 출발일: 12/10, 16, 19
- ★ 큐슈 구중산,유후다케 가을 단풍여행 4일 ₩32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국내(광주-부산)수송, 선내 식사 출발일: 12/12, 16, 17
- ▶ 일본 전통료칸 스즈유 마을 온천 즐기기 4일 ₩42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국내(광주-부산)수송, 선내 식사 출발일: 12/12, 17
- ★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템보스 4일 ₩51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팀(₩20,000), 국내(광주-부산)수송, 중식1회
- ★ 큐슈 자유여행 (선박+호텔2박) ₩19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선내식사, 부두세별도

항공으로 떠나는 일본 즐기기~!!

- 실속 오사카, 교토, 나라 3일 ₩699,000 불포함: 국내(광주-부산)수송, 기사&가이드팀
- ▶ 오사카, 교토, 나라 4일 ₩999,000 불포함: 국내(광주-부산)수송, 기사&가이드팀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요시, 광고사할 철저히 준수합니다.
*2명당 1명당 1인 기준, 여행사보험 가입/여행공제 가입업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사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 국내상품:5천만원), 관광진흥법기준,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성당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회사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